Repor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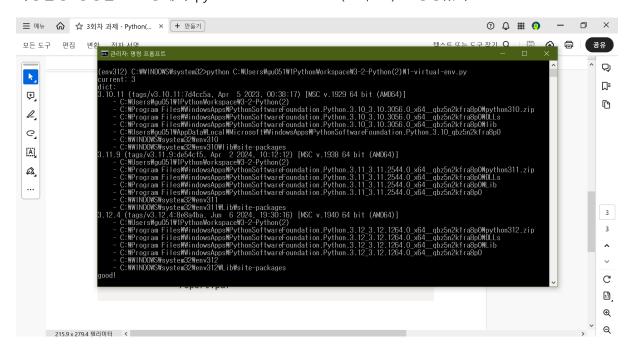
김준호

1. 1-virtual-env.py

Jupyter notebook과 cmd만 쓰다가 vscode로 하려니 자꾸 설정이 꼬이고 뭐가 잘 안돼서 cmd 창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...

가상환경 Python 버전은 3.10, 3.11, 3.12로 진행했다.

가상환경 생성은 cmd창에서 python -m venv env310(311,312)로 생성했다.



2. 2-argparse.py

"—start"와 "—end"는 integer로 type 지정을 해주었고, "—verbose"는 boolean flag이다.

처음엔 "—start"의 default를 0으로 하는 코드를 넣지 않았다가, solution을 보고 수정했다.

3. 3-collection.py

init : 딕셔너리를 초기화하고 기본값을 생성하는 함수 default_factory를 설정한다.

__getitem__: 처음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.

def __getitem__(self, key: K) -> V:

if key not in self:

if self.default_factory is None:

raise KeyError(key)

self[key] = self.default_factory()

return super().__getitem__(key)

위 코드에 대한 설명: 키가 딕셔너리에 있는지 확인하여 키가 없고 default_factory가 제공된 경우, 기본 값을 생성하여 딕셔너리에 추가하고 반환한다. default_factory가 제공되지 않고 키가 없는 경우 KeyError를 발생시킨다.

그러나 solution을 확인해보니 solution의 코드가 훨씬 간단하고 효율적인 듯하여, solution에 있는 코드를 채택했다.

_setitem_이 필요 없는 이유:

_setitem_은기본 딕셔너리 클래스에서 이미 제공하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현할 필요가 없다. defaultdict 클래스는 딕셔너리의 항목을 설정하는 기능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, 항목에 접근할 때만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_getitem_만 구현하면 된다.